

광주지검, 허위고소·위증 34명 적발

광주지검(검사장 양부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허위고소(무고)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무고사범 19명과 위증사범 15명 등 총 3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8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22명을 약식기소했다. 4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무고사범 유형별 분석 결과 성범죄 허위고소 유형이 57.8%(1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평소 원한 등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을 상대로 허위고소한 사례(5명·26.4%), 형사입건을 이유로 신고자를 보복하기 위해 허위고소한 사례(3명·15.8%)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같은 인터넷 동호회 회원(피고소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례에서 성관계 직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안겨 걸어가

성범죄 허위고소·친분형 위증사범 많아 검찰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지속 단속"

CCTV 촬영내용을, 성관계 뒤 고소 전까지 서로 일상적 문자 대화를 나눴던 자료 확보 등으로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사실임을 입증했다.

이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다른 여성을 사귀며 자신을 소홀히 대하자 허위고소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초동수사 단계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국가 차원에서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를 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판단,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위증사범의 경우 인정에 얽매어 발생한 친분형 위증사범(11명·73.3%), 공범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은폐형 위증사범(2명·13.3%),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제적 목적 위증사범(2명·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장의 위증 부각을 거절하지 못하고 위증하거나 친구의 처벌을 면해주기 위해 위증하거나 심지어 미성년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증한 사례도 드러났다.

교통사고와 관련,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증언의 대가로 사례를 받은 뒤 법정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 30명을 형사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고소의 상대방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하

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한다. 국가의 수사력 또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 재판부의 오판을 유발하게 해 범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이다.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국민정서, 경제적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극적인 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상반기 법정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 30명을 형사입건했다.

주준청 기자

함평서 주택 불·80대 여성 숨져

함평의 한 주택에서 난 불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80대가 숨졌다.

15일 오전 6시33분께 함평군 대동면 A(84·여)씨의 집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32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목조블록 주택(66㎡ 규모)의 지붕 등이 무너지면서 A씨가 부엌 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거실에서 자고 있던 A씨의 여동생 B(80)씨는 화재 직후 곧바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불길을 목격한 뒤 부엌 쪽으로 나오다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부검할 방침이다.

또 "평소 온열기구를 자주 사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안방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함평=김광천 기자

유흥업소 단속하며 뇌물 챙긴 경찰 수사

검찰이 불법유흥업소를 단속하며 뇌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관내 경찰서의 관내 불법유흥업소 단속과 관련된 경찰관 2명의 뇌물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송파구 인근 유흥업소 주인 A씨로부터 각각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가락시장 일대의 유흥업소 단속에서 걸린 A씨가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며 청탁했다는 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보도와 달리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경찰관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언급은 불가하다"고 말을 아꼈다.

선원소개비 1억8천만원 챙긴 2명 검거

미등록 선원 소개소를 운영하며 거액의 소개비를 챙긴 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미등록 선원 소개소를 차리고 1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챙겨온 우씨(48·부산)씨와 윤씨(52·부산)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2월1일부터 10월26일까지 부산에 사업장을 열고 제주도에서 총 80회에 걸쳐 어선 소유자 등에게 선원 113명을 소개해 소개비 1억30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지난 2016년 11월4일부터 지난해 1월23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선원 41명을 소개해 소개비 5000만원 가량을 가로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 지역 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과 지역 신문 등에 '월 4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선원을 모집해 1인당 120만원가량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관내 어선 소유자 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선원 소개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7조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고생 협박 3년 동안 성관계 한 학원장 영장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고생을 협박해 3년 동안 성관계를 한 40대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5일 전 학원장 A(46)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당시 여고 2학년인 B양과 성관계를 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총 10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해 현금 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동영상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뉴스

7년 간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84명...79명 사망해

최근 7년간 광주·전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284명으로 이 중 79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광주·전남 지역민(환경보건시민센터 신고)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광주지역 피해자는 159명으로 이 중 38명이 숨졌으며, 생존 환자는 121명(76%)이다.

전남에서는 피해자 125명 중 41명이 숨지고, 84명이 생존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와 전남 지역 사망률은 각각 24%, 33%로 전국 평균(2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전국 350만~4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10% 가량인 30~50만명이 제품 사용 뒤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추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병원에서 내원자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전국민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남규 기자



한파 속 시래기 수확 현장 15일 충북 음성군의 한 농가에서 겨우내 건조한 시래기(무순)를 수확하고 있다. 이 농가는 같은 시설하우스에서 6월에는 수박, 9월에는 메론을 수확하는 등 3기작을 하고 있다.

'AI 저지 최후 보루'...나주시, 통제초소 40곳 설치

3단계 차단 시스템 가동...공무원·군병력 투입 24시간 운영

나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저지를 위한 최후 보루로 농가별 담당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차단 방역에 돌입했다.

나주시는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3단계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가금류 사육 농가 입구에 '통제초소' 40개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3단계 차단 방역시스템은 1단계 거점소독시설→2단계 농가 통제초

소→3단계 농가입구 소독시스템' 등으로 이뤄졌다.

현재 나주 지역에는 거점소독시설 3개소, 농가 통제초소 40개소, 농가 입구소독 시설 5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날 설치 완료된 통제초소 40곳에서는 닭·오리를 사육 중인 57농가에 대한 차량 출입통제, 소독필증 확인, 입·출입자를 대상으로 소독업무 등이 이뤄지고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통제초소는 공

무원 6명과 군 병력 2명 등 총 8명이 상주하며 3교대로 운영된다.

올 겨울 들어 전남 지역에서는 고병원성 H5N6형 AI가 11건 발생한 가운데 전국 최대의 오리 산지인 나주에서는 2건이 발생했다.

이른 인해 나주 지역에서는 닭 13만417마리, 오리 17만8154마리 등 가금류 30만8571마리가 살처분 됐다.

나주 지역은 이날 현재 91농가에서 오리 41만1000마리와 58농가에서 닭 470만6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민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학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